

국별 리포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Republic of Bosnia-Herzegovina)

I. 일반개황

면적	51천 km ²	G D P	144억 달러(2007년)
인구	3.9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3,692 달러(2007년)
정치체제	공화국 연합	통화단위	Marka(KM)
대외정책	장기적으로 EU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1.56(2007년 평균)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와 인접하고 있고, 수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된 사라예보이며,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4 수준임.
-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계 및 크로아티아계의 3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보스니아 지역은 1992년 4월 보스니아계의 주도로 舊유고연방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및 크로아티아의 개입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참혹한 내전을 겪은 바 있음.
- 이후 NATO 및 EU의 감시하에 정치사회가 안정되고 있으나 이는 각 계파간 자발적 의사가 아닌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형성된 만큼 민족 내부의 갈등요인은 상존함.
- 한편, World Bank는 국제사회 원조로 전후 경제 재건과 사회안정성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3.5	6.1	5.0	6.2 ^e	5.5
재정수지 / GDP	-1.8	-0.6	1.0	3.0 ^e	0.0
소비자물가상승률	0.6	0.4	3.7	7.5	2.1

자료: EIU.

2004년 이후 5% 이상 경제성장세 지속

- 실질임금 상승과 가계신용 증가로 인한 민간부문 소비 호조 및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2007년 경제성장률은 5.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008년에도 민간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대규모 건설 공사와 기업의 투자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대 유로존 수출 증가 둔화,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외자 유입 축소 가능성,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시행, 주변 지역의 정치적 위험 고조 등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단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부정적 요인임.

안정적 재정수지 관리 지속

- IMF 대기성차관 도입을 계기로 2000~04년 중 재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재정수지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2006년에는 총선 관련 지출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도입 효과로 3%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동 세수증대 효과가 다소 축소하였지만 재정수지는 균형 수준임.

- 다만, 복잡한 국가 행정체계로 인해 재정정책이 일관성 있게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수요와 퇴역군인·연금 수급자·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정부지출 증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 정부지출의 적정관리에 장애요인임.

□ 2006년 물가상승률 최고조, 이후 안정세 전환

- 2005년 이후 국제 원유가 상승과 더불어 담배 및 주류 관세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2006년에는 고유가 지속 및 부가가치세 도입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5% 수준에 달하였음.
- 국제 고유가 및 식량가격 급등 상황에서 식료품비 및 난방비가 가계 소비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큰 편임. 다만, 신규 세금 도입 계획이 없고, 통화당국의 물가안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2006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 정책

□ 보스니아 내전 이후 산업기반 붕괴로 제조업의 경제활동 비중 작은 편

- 체제전환 이전에는 화학제품·비철금속 생산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이 발달하였으나, 내전(1992~95년)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대부분 붕괴되어 제조업의 경제활동 비중이 현저히 저하됨.
 - GDP의 67.9%(2005년)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국가 행정체계 및 내전경험으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 규모가 비대하게 성장하였기 때문임.
- 2005~06년 산업분야별 경제활동을 보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은 식료품 가공·비금속·섬유·임업 분야, 슬르프스카 공화국에서는 비철금속과 화학제품 분야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분야가 주요 수출산업을 형성함.

□ 열악한 민간기업 경영여건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 은행업은 대부분 민영화되어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속도가 느리고 민간부분의 생산활동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임.
 - 이는 과중한 조세 부가 등 열악한 경영여건에 기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투자와 고용창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2005년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40%로 매우 높은 편이고 지하경제 고용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18~22% 수준으로 추정되는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임.

□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IMF 대기성 차관 도입이후 국방비 및 원호대상자 보조금 지급축소, 공공임금 상승억제, 연금개혁 및 과세기반 강화를 골자로 정부 재정 구조개혁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연방정부 및 각 체제(FBiH 및 RS)간 재정정책협의기구인 국가재정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였음.
- 한편, 내전 이후 외화자산 동결조치에 따른 외화예금 지급청구, 전쟁 피해 보상청구, 정부 조달부문 관련 미지급금 청구에 따른 과중한 국내 공공채무 규모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통화위원회 제도 운영

- 전후 초인플레이션 경험이 있어 통화 안정성 확보를 주요 거시경제 목표로 삼고 있음. 1998년 이후 통화위원회 제도(1.96KM=1유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주로 지불준비금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소비증가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나, 중앙은행은 동 증가세가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현행 15%의 기준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시사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1,631	-1,639	-1,976	-1,233	-2,041
경 상 수 지 / G D P	-22.94	-19.19	-21.03	-10.07 ^e	-14.18
상 품 수 지	-4,159	-4,570	-4,953	-4,298	-5,646
수 출	1,478	2,087	2,590	3,381	4,261
수 입	-5,637	-6,656	-7,543	-7,680	-9,907
외 환 보 유 액	1,796	2,408	2,531	3,372	4,600
총 외 채 잔 액	4,464	5,249	5,564	5,669	6,7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67.77	61.45	59.22	46.29	46.54
D . S . R .	5.4	5.0	4.8

자료: IMF, EIU, World Bank.

□ 소비재 중심의 수입구조 및 EU 중심의 교역

- 수출의 23%(2006년)를 비금속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은 낮은 편임. 수입품목은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자본재보다는 소비재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소비재의 품질이 열악한 점과 전후 재건사업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함.
- EU가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전체 수출의 58%, 수입의 47%(2006년)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크로아티아는 단일 국가로서 최대 교역상대임. 또한 최근 슬로바키아 기업의 투자 증가로 대 슬로바키아 수출(2006년 성장률 72%) 시장이 부상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 누적문제 지속

- 2006년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위해 수출 신고가 증가하여 상품수지가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폭도 다소 개선되었음. 그러나 국내 소비 및 투자수요 증가로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향후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비공식 경로를 통한 해외송금 및 자본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민영화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 1999년 외국인 투자진흥청(FIPA) 설립 후 2002년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도입과 더불어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노력에 따라 2004년 FDI 유입액은 6.7억 달러에 달하였음.
- 그러나 대부분의 FDI 유치가 국영기업 민영화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성과 부진에 따라 2005년부터는 FDI 유입액도 감소하고 있음. 한편, 2006년말 Telekom Srpske 민영화 (8.4억 달러 규모)로 2007년 이후 FDI 유입은 증가하는 추세임.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1국 2체제의 복잡한 국가 형태

- 1992년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여부를 놓고 발발한 내전이 1995년 Dayton 평화협정으로 종결된 이후 NATO 및 EU의 감시하에 평화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 Dayton 평화협정에 의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iH)는 이슬람 및 크로아티아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과 세르비아계의 스프스카 공화국(RS)으로 구성된 1국 2체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연방정부(Bosnia and Herzegovina)>

- 대통령위원회: 각 계파 대표 3인이 8개월 단위의 순번제로 의장(대통령) 역임(임기4년).
- 대통령위원회의 지명과 하원의 승인으로 선출되는 총리, 양원제 의회, 8개 부처로 구성되는 각료협의회,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 및 스프스카 공화국(RS)>

- FBiH: 간선 대통령, 양원제의회(하원:직선, 상원:간선) 등으로 구성
- RS: 직선 대통령, 대통령 지명 총리, 단원제 의회 등으로 구성

□ 2006년 10월 총선에 따른 정부 개편

- 2006년 10월 총선으로 Nebojsa Radmanovic(세르비아계), Haris Silajdzic(보스니아계), Zeljko Komsic(크로아티아계)가 새로운 대통령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국제사회의 중재를 거쳐 2007년 2월, 7개정당 연합 연방정부가 수립되었음.
- RS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SNSD(독립사회민주연합)가 2006년 11월, 두 소수정당과 연합정부를 형성함. FBiH의 경우, 총선결과 SDA(민주행동당) 및 SzBiH(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당)가 백중세를 보였으며 공무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신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7년 3월 말 정부구성에 성공함.

□ OHR 해체시기 연기(2008년 중반)

- OHR(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은 Dayton 평화협정 이행 감시기구로 1998년 이후 입법 강제권, 공직자 임명 거부권 및 해임권을 나타내는 "Bonn Powers"를 보유한 실질적인 최고 행정기관으로 당초 2007년 중반 해체 예정이었음.
- 그러나, 코소보를 둘러싼 지역 분쟁 가능성 및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이유로 해체시기가 1년간 늦춰졌으며, 2008년 중반 이후 재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현재 친러시아 성향의 RS 정부는 재연장 불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서방세력은 코소보 독립선언 이후 고조된 국제적 긴장을 고려하여 재연장을 지지하고 있음.

□ EU 안정제휴협약(SAA) 관련 BiH내 의견 대립

- BiH는 EU 가입을 목표로 2005년 11월부터 SAA 공식 협상을 시작하여 EU가 제시한 각종 개혁 권고사항들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 12월 EU는 SAA 조인을 마친 상태이고, 2008년 중반까지 BiH의 서명 기한을 두고 있음.
- 한편, BiH 내부에서는 SAA 체결의 필수조건인 정책 수립의 중앙화 및 협정 개정을 놓고 주요 정당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이슬람계 보스니아 지도자들은 중앙집권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는 지방 분권화를 주장하고 있어 SAA 체결은 늦춰질 가능성이 큼.

2. 사회 및 소요사태

□ 코소보 독립관련 RS의 연방 탈퇴 주장, 실현가능성 작음

- 2008년 2월 17일, 코소보(알바니아계)가 세르비아로부터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하자 BiH내 세르비아계인 RS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소보 독립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하여 미국·독일·프랑스 영사관 건물이 공격받은 바 있음.

- 또한, UN과 EU 회원국 다수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의견이 모아지자 RS도 BiH에서 독립하여 세르비아와 합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RS 의회는 2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RS도 독립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하였음.
- 이는 내전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BiH의 정치상황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그러나, RS 의회의 상기 결의안 채택과 관련 BiH 주재 EU 대사 및 미국 대사가 강력한 비난 의견을 표명하고 미국과 EU의 Dayton 평화협정 유지 의지를 강조한 점 등으로 볼 때 RS의 독립 실현 가능성은 아직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Moody's : B3('04. 3) → B2('06. 5)
- OECD : 7등급('97. 9)
- Euromoney : 104/185('07. 3) → 107/185(07. 9)
- I.I : 101/174('07. 3) → 110/174(07. 9)

<Moody's의 평가등급 상향조정 주요 사유('06. 5. 17)>

- EU와의 안정제휴협약(SAA) 협상 개시로 정치·경제 발전 및 유럽과의 통합 촉진 기대
- 관리 가능한 정부채무 수준
- 부가가치세 도입(2006. 1)으로 인한 세수증대
- 지방당국의 행정능력 제고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 제한적 중단기 인수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 중기 제한적 인수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실적

리스케줄링 실적 있으나 외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

- 1998년에는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에서 구유고연방 외채의 일부를 탕감 조치 받았으며, 2003년에는 일본정부에대한 외채의 1/3이 탕감 조치 되었고 나머지는 리스케줄링을 받음.

- 2006년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BiH 정부의 외채규모는 전년대비 6% 감소한 6천만KM(약 38백만달러)이며 이중 절반이상을 World Bank가 차지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국제금융기관의 양허성 자금이므로 외채관리에 큰 부담은 없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는 1995년 12월에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2007년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교역규모는 2,151만 달러(전년 대비 39.1% 증가)로 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수출은 2,105만 달러(전년대비 48.1% 증가) 수입은 46만 달러(전년대비 63.1% 감소)를 기록함.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산업기계, 화학제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제품임.
- 200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해외투자 실적은 없음.

V. 종합의견

-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수지 및 물가상승률이 적절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적인 국면임. 다만, 전후 산업기반 재건이 미흡하여 제조업의 경제활동 비중이 크지 않은 점, GDP 대비 10%대를 상회하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 등이 안정적 경제성장 및 대외거래 불균형 해소 등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1국 2체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 및 스르프스카 공화국) 복잡한 민족 구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잠재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2월 세르비아 내 코소보 독립선언과 관련하여 연방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음. 그러나 아직 체제분열 가능성은 낮으며 체제 유지를 위한 UN, EU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등으로 대외관계 안정이 표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상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됨.

전문연구원 구윤정(☎02-3779-6665)

E-mail : kooyj@koreaexim.go.kr